

## 향가의 문학적 해독

林 基 中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머리말

이 글은 필자가 양주동의 “고가연구”(이하 ‘고연’으로 약칭)에서부터 김완진의 “향가해독법연구”(이하 ‘해독법’으로 약칭)에 이르기까지 어학적 해독의 결실들을 문학적으로 살펴 나가는 세 번째의 글이다.<sup>1)</sup> 양주동이 세 번째 쓴 “‘고가전’ 제강 및 차의”<sup>2)</sup> (이하 ‘전차의’로 약칭)와 김완진의 “향가해독법연구”의 해독 시어들을 대비하여 얻어낸 결과를 7목음으로 나누어 1군데도 다르게 읽지 않은 작품군(처용가, 풍요, 수회공덕가), 1군데만을 다르게 읽은 작품군(현화가, 서동요, 제망매가, 예경제불가, 칭찬여래가, 청전법륜가, 향순중생가, 보개회향가)을 첫번째 글에서 다루었으며, 2군데를 다르게 읽은 작품군(도술가, 상수불학가, 참회업장가, 총결무진가)을 두 번째 글에서 다루었다. 이번엔 쓰는 세 번째 글에서는 3군데를 다르게 읽은 작품군(혜성가, 원왕생가, 광수공양가, 청불주세가)만을 거론해 보려고 한다. 4군데를 다르게 읽은 작품군(모죽지랑가, 안민가, 땡아

- 
- 1) 첫번째 글은 “향가해독의 문학적 평가”, (서울, 동국대논문집 제27집, 1989.3.)이고, 두 번째 글은 “향가해독의 문학적 평가와 해석”, 양주동연구, (서울, 민음사, 1991.10.)이다.
  - 2) 첫번째는 “학풍”, (서울, 을유문화사, 1949.)에 ‘고가전차의’를 썼고, 두 번째는 “인문과학”, (서울, 연세대, 1958.)에 ‘고가전차의’를 썼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대논문집”, (서울, 명지대, 1969.)에 “‘고가전’ 제강 및 차의”를 썼다.

득안가, 원가), 6군데를 다르게 읽은 작품(찬기파랑가), 9군데를 다르게 읽은 작품(우적가)은 이후 다른 글에서 살피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 문학적 해독이란 용어는 어학적 해독의 성과를 시어와 시문법이란 측면에서 살펴본다는 소박한 의미로 쓴 말이다. 문학을 공부하는 처지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향가 해독은 (1)어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모두 다 성공한 해독, (2) 문학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어학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는 해독, (3)어학적으로는 비교적 성공했으나 문학적으로는 실패한 해독, (4)어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문학적으로도 만족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해독이라는 이 4가지의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서 (1)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2)-(4)가 문제가 된다. 어학을 하는 이들은 어학적으로 타당한 해독이면 곧바로 만족할런지 모르지만 문학을 하는 이들은 아무리 어학적으로 성공을 거둔 해독일지라도 문학에서는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해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문학을 공부하는 이들은 어학자들에게 또 다른 해독이 없겠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그러한 취지에서 쓰고 있는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1)에 해당하는 시어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는 것이다. 이런 글을 써 나가고 있는 동안 유창균의 “향가비해”(1994.10.)가 출간되었으므로 이번 글부터는 “향가비해”(이하 ‘비해’로 약칭)의 성과까지를 포함시켜서 거론해 보기로 한다.

## 2. ‘전차의’와 “해독법”의 詩語

양주동의 “고가연구” 작품배열순에 따라서 ‘전차의’와 ‘해독법’의 시어들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1>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표-1>

향가명	원 문	전 차 의	해 독 법	비고
모죽지 랑 가	① 去隱春皆理米	간 봄 그리매(○) (간 봄 그리매)	간 봄 <u>문</u> 오리매 (지나간 봄 돌아오 지 못하니)	ㄴ
	② 阿冬音乃叱 好支賜烏隱	<u>아</u> 툰 날호샤온(△) (아름다움 나타내심)	<u>므</u> 뉘곳 불기시온 (殿閣을 밝히오신)	ㄴ

향가명	원 문	전 차 의	해 독 법	비고
	③ 負史年數就音 墮支行濟	즈시 살쫘 디니져 (○) (얼굴이 주름살을 지니려 하옵내다)	즈시 <u>히</u> <u>혜나살</u> 헐니져 (모습이 해가 갈수 룩 헐어가도다)	ㄱ
	④ 逢鳥支惡知作 乎下是	맛보요기 지소리 (△) (만나 뵈도록 기회 를 지으리이다)	맛보기 <u>엇디</u> 일오아 리 (만나보기 어찌 이 루리)	ㄱ
현화가	⑤ 紫布岩乎辻希	딤배 바회 <u>궤</u> 희(◎) (자줏빛 바위 끝에)	지뵈 바회 <u>궤</u> 새 (자주빛 바위 가에)	궤희 (岩頂) 궤새 ㄱ (岩邊)
	⑥ 執音乎母牛放 教遣	자뵈온손 암쇼 노히 시고(○) (잡은온 암소 놓게 하시고)	자뵈문손 암쇼 노히 시고 (잡고 있는 암소 놓 게 하시고)	ㄴ
	⑦ 吾矜不喻慚矜 伊賜等	나홀 안디 붓흐리샤 든(○) (나를 아니 부끄러 하시면)	나를 안디 붓그리샤 든 (나를 아니 부끄러 워 하시면)	=
	⑧ 花矜折叱可	꽃홀 짓가(○) (꽃을 꺾어)	고줄 짓거 (꽃을 꺾어)	=
안민가	⑨ 君隱父也	궤은 업여(◎) (궤은 아버지요)	궤은 아비여 (궤은 아버지요)	=
	⑩ 臣隱愛賜尸 母史也	궤은 달살 <u>어</u> 시여 (◎) (궤은 사랑하실 어머 니요)	궤은 드스신 <u>어</u> 시여 (궤은 사랑하시는 어 미요)	ㄴ
	⑪ 民焉狂尸恨阿 孩古	민은 <u>얼</u> 호 아히고 (◎) (민은 어린 아이로고)	민은 <u>어</u> 릴호 아히고 (민은 어리석은 아이 로고)	ㄱ

항가명	원 문	전 차 의	해 독 법	비고
안민가	⑫ 窟理叱大胎生 以支所音物生	구물 스 다히 살손物 生(○) (구물거리며 살손 生物)	구릿하늘 살이기 바 라물씨 (大衆을 살리기에 익숙해져 있기에)	ㄱ
	⑬ 此盼喰惡支治 良羅	이홀 머기 다스라 (○) (이를 먹여 다소려 져)	이를 <u>치악</u> 다스릴러 라 (이를 먹여 다스릴 러라)	
	⑭ 此地捨遺只	이 <u>싸홀</u> 버리꼭(◎) (이 땅을 버리고)	이 <u>싸홀</u> 버리꼭 (이 땅을 버리고)	=
	⑮ 放冬是去於丁	어디 <u>갈더</u> (?) (어디 가려)	<u>어드리</u> 가늘더 (어디로 가겠는가)	ㄷ
	⑯ 國惡支	나라악(◎) (나라 안)	나라악 (나라)	ㄱ
	⑰ 國惡太平 恨音叱如	나라악 太平 흔니잇다(○) (나라안이 太平하니 이다)	나라악 太平 <u>흔늬다</u> (나라가 太平을 지 속하느니라)	ㄱ
찬기파 랑 가	⑱ 咽鳴爾處米	<u>열치매</u> (◎) (열치매)	<u>늦겨곰</u> 바라매 (흐느끼며 바라보매)	ㄱ
	⑲ 露曉邪隱月羅 理	난호얀 드리(◎) (나타난 달이)	이슬 밝간 드라리 (이슬 밝힌 달이)	ㄱ
	⑳ 浮去隱安支下	떠가논 안디하(◎) (떠감 아니야?)	떠간 안저레 (떠감 언저리에)	ㄱ
	㉑ 沙是八陵隱 汀理也中	<u>새파란</u> 나리여히(○) (새파란 내(川)에)	<u>몰이</u> 가른 들서리여히 (모래 가른 물가에)	ㄱ
	㉒ 心未際叱盼 遂內良齊	므스민 <u>조홀</u> 좇누아 져(○) (마음의 끝을 좇과 져)	므식민 <u>그울</u> 좇누라 져 (마음의 갓을 좇고 있구나)	ㄷ

항가명	원 문	전 차 의	해 독 법	비고
찬기과 랑 가	㉓ 雪是毛冬乃平尸	서리 <u>몰</u> 누울(○) (서리를 모르울)	누니 <u>모</u> 둘 두폴 (눈이라도 덮지 못할)	ㄱ
	㉔ 花判也	花반여(○) (花郎長이여)	꽃가리여 (고깔이여)	ㄱ
처용가	㉕ 東京明期月良	신 <sup>불</sup> 불기 드래(○) (東京 밝은 달에)	東京 불기 드다라 (東京 밝은 달에)	=
	㉖ 入良沙癡矣見昆	드러샤 자리 보곤(○) (들어와 자리를 보니)	드러샤 자리 보곤 (들어와 자리를 보니)	=
	㉗ 脚烏伊四是良羅	가르리 네히어라(△) (가랭이가 넷이로구나)	가로리 네히러라 (다리가 넷이러라)	=
	㉘ 二盼隱吾下於叱古	둘흔 내해엇고(?) (둘은 내해엇고)	두보른 내해엇고 (둘은 내해엇고)	=
	㉙ 二盼隱誰支下焉古	둘흔 뉘해엇고(○) (둘은 뉘해엇고)	두보른 누기헨고 (둘은 누기헨고)	=
	㉚ 奪叱良乙何如爲理古	아스놀 엇디 흐릿고(○) (빼앗은 것을 어찌 하겠는가)	아스놀 엇디 흐릿고 (빼앗은 것을 어찌 하리오)	=
서동요	㉛ 他密只嫁良置古	남 <u>그스지</u> 얼어두고(○) (남 그윽히 얼어두고)	남 <u>그스</u> 어려두고 (남 몰래 짝맞추어 두고)	ㄴ
	㉜ 夜矣卯乙抱遣去如	바미물 안고가다(?) (밤에 몰래 안고가다)	바매 알홀 안고가다 (밤에 알을 안고가다)	ㄱ
도천수 관음가	㉝ 漆盼古召旆	무루풀 <u>고조</u> 며(○) (무릎을 곧추며)	무루풀 <u>느초</u> 며 (무릎을 낮추며)	ㄱ
	㉞ 二尸掌音毛乎支內良	둘 <u>숄</u> 바당 모호누아(?) (두 손바닥을 모으와)	두볼 <u>손</u> 바롬 모도 <u>느</u> 라 (두 손바닥 모아)	=
	㉟ 一等下叱放 一等盼除惡支	<u>흐든</u> 홀 노흐 흐든홀 더옴디(△)	<u>흐든</u> 헨 <u>노</u> 하 흐든홀 더럭	ㄱ

항가명	원 문	전 차 의	해 득 법	비고
도천수 관음가	㉞ 一等沙隱賜以	(하나를 놓고 하나 를 더웁기) 흐든샤 그스시(△) (하나야 그윽히)	(하나를 놓아 하나 를 덜어) 흐든샤 숨기주소서 (하나를 숨겨 주소서)	ㄱ
	㉟ 放冬矣	노흐딘(○) (놓되)	어드레 (어디에)	ㄱ
풍 요	㊸ 來如	오다(○) (오다)	오다 (온다)	ㄷ
	㊹ 功德修叱如良 來如	功德닷그라 오다(○) (功德 닦으러 오다)	功德 단그라 오다 (功德 닦으러 온다)	=
원 왕 생 가	㊺ 月下伊底亦	돌하 이데(?) (달하 이제)	드라리 잇데역 (달이 어째서)	ㄱ
	㊻ 西方念丁去賜 里遣	西方스장 가샤리고(?) (西方까지 가서서)	西方스장 가샤리고 (西方까지 가시겠습 니까)	ㄱ
	㊼ 惱叱古音多可 支自遣賜立	넛곰 다가 숲고샤서 (◎) (일러다가 사뢰소서)	궤곰 함죽 숲고쇼서 (報告의 말씀 빠짐없 이 사뢰소서)	ㄱ
	㊽ 誓音深史隱	다딤 기프산(?) (다짐(誓) 깊으신)	다딤 기프신 (誓願 깊으신)	=
도솔가	㊾ 巴寶白乎隱	반솔본(◎) (뿌리온)	보보솔본 (숫아나게)	ㄱ
	㊿ 陪立羅良	모셔관(◎) (모셔라)	모리셔 벌라 (모셔 羅立하라)	ㄱ
제 망 매 가	㋀ 次盼伊遣	저히고(◎) (정이어서)	머뭇그리고 (머뭇거리고)	ㄱ
혜성가	㋁ 倭理叱軍置來 叱多	倭軍두 옷다(○) (倭軍도 왔다)	여릿軍도 옛다 (倭軍도 왔다)	=
	㋂ 烽	燧(?) (烽火)	훤 (햇불)	=

향가명	원 문	전 차 의	해 독 법	비고
혜성가	④⑨ 岳音見賜烏尸	오름 보샤올(○) (山 구경 오심)	오름 보시올 (山 보신다는 말씀)	ㄱ
	⑤⑩ 月置八切爾數 於將來尸波衣	둘두 브즈리 허렬 바 애(◎) (달도 부지런히 등 불을 켜려는데)	드라라도 ㄱ르그시 자자렬 바애 (달도 갈라고어 잦아 들려 하는데)	ㄱ
	⑤⑪ 比也友物北所 音叱	이 어우 무슴(?) (이 보아 무슴)	이에 버름 무슴스 (이에 어울릴 무슴)	ㄱ
	⑤⑫ 慧叱只有叱故	慧스기 이실꼬(◎) (慧星이 있을꼬)	慧스다므닛고 (慧星을 함께 하였습 니까)	ㄱ
원 가	⑤⑬ 物叱好支	물힛(?) (뜰의)	갓도히 (質 좋은)	ㄱ
	⑤⑭ 汝於多支行齊 教因隱	너 옛메 니지이신(?)  (너를 어찌 잊어? 하 신)	너를 하니겨 후시몬 (너를 重히 여겨가겠 다 하신 (것과는 달 리))	ㄱ
	⑤⑮ 行尸良阿叱 沙矣以支如支	널몹걸 애와티듯(?) (옛 못(淵)의 가는 물결 원망하듯이)	널몹겨랏 물애로다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	ㄱ
	⑤⑯ 世理都之叱 逸烏隱第也	누리도 아쳐론데여 (△) (누리도 싫은지고)	누리 모든갓 여히온 디여 (세상 모든 것 여희 여 버린 處地여)	ㄱ
우적가	⑤⑰ 貞史毛達只將 來吞隱日	중 모드렷단 날(?) (形相을 모르려던 날)	즈시 모돌 보려든 (모습이 볼 수 없는 것인데)	ㄱ
	⑤⑱ 遠烏逸□□過 出知道	머리□□ 지나치고 (?) (멀리□□ 지나치고)	日遠烏逸 드라(月矣) 래 난 알고 日遠烏逸 달이 난 것 을 알고)	ㄱ

항가명	원 문	전 차 의	해 독 법	비고
우적가	⑤9 全吞藪未去遣 省如	열든 수메 가고 쇼다 (△) (이제란 숨어서 가 고 있네)	열든 수플 가고 싱다  (지금은 수플을 가지 고 있습니다)	ㄱ
	⑥0 破□主	破戒主(◎) (破戒主)	破家 니림 (强豪님=도적 頭目)	
	⑥1 次弗□史內於 都還於尸朗也	저 플 즈새는외 쏘 돌려(?) (두려워할 것에 다 시 또 돌아가리(?))	머물오(乎)시는놀 도 도랑여 (머물게 하신들 놀라 졌습니다)	ㄱ
	⑥2 此兵物叱沙過 乎	이 잠글사 디내온(?) (이 쟁기를사 지내온)	이 자분가시사 말오 (兵器를 마다하고)	ㄱ
	⑥3 好尸日沙也內 乎吞尼	도홀 날 새우눗다 (?) (좋은 날이 새리러 니)	즐길法이사(日-法) 듣느(也-聞)오다니 (즐길 法을랑 듣고 있 는데)	ㄱ
	⑥4 唯只伊吾音之 叱恨隱潛陵隱	오직 이오맛흔 좋은 (?) (오직 요만한 좋은)	오직 더오맛흔 물론 (조만한 善業은)	ㄱ
	⑥5 安尙宅都乎 隱以多	안디 새집드외니다 (?) (아니 새집이 되니 이다)	안죽 턱도 업스니다  (아직 턱도 없습니다)	ㄱ
예경제 불 가	⑥6 法界毛叱所只	法界 못도록(○)	法界 업드록 (法界 없어도록)	ㄴ
	⑥7 刹刹每如邀里 白乎隱	刹刹마다 외시리 술본 (?)	刹刹마다 모리술본 (절마다 외서 놓은)	=
	⑥8 此良夫作沙毛 叱等邪	이에 브즐 스못다라 (○)	이렇므르지사 못드야 (이리宗旨 지어 있 노라)	ㄱ

향가명	원 문	전 차 의	해 독 법	비고
칭찬여 래 가	⑥9 海等	바달(○)	바달(바다)	=
	⑦0 塵塵虛物叱	塵塵虛物人(?)	塵塵虛物人 (塵塵虛物)	=
	⑦1 間王	西王(◎)	醫王 (間은 醫字의 초서 체와 유사)	≠
	⑦2 毛等盡良	문돌 다아(○)	모돌 다아라 (못다 사된 너여)	∞
광수공 양 가	⑦3 法界毛叱色只	法界모도룩(◎)	法界업도룩 하며 (法界 없어지기까지 하며)	≠
	⑦4 佛佛固物叱	佛佛 드못(??)	佛佛 온갖 (佛佛 온갖)	≠
	⑦5 伊於衣波	어 어의바(◎) (감탄사)	더를 니버 (저를 體得하여)	≠
참회업 장 가	⑦6 顛倒逸刑	顛倒이라(△)	顛倒여히야 (顛倒여의여)	≠
	⑦7 菩提向焉道乙 迷波	菩提아오 기를 이바 (○)	菩提아오 길홀 이바 (菩提向한 길을 몰 라 헤매어)	=
	⑦8 造將來臥 乎隱惡寸隱	지슬누은 모디는 (○)	지스려누은 머즈는 (짓게되는 惡業은)	∞
	⑦9 淨戒叱主留 卜以支乃遣只	淨戒사主루 디니는 곡 (?)	淨界사主로 디니는 곡 (淨界의 主로 지니고)	=
	⑧0 令日部 頓部 叱懺悔	오늘 주비 頓部人懺 悔(??)	오늘 주비 브르보 懺悔 (오늘 部衆 바로 懺悔)	≠
수희공 덕 가	⑧1 不冬喜好尸 置乎叱過	안돌 깃홀 두오릿고 (◎)	안돌 깃글 두오릿과 (기뻐함 아니 두리 이까)	∞
청전법 륜 가	⑧2 彼仍反隱	더 너븐(△)	더 지즐논(反→乃) (저 잇따르는)	≠

항가명	원 문	~ 전 차 의	해 독 법	비고
청불주 세 가	㉘ 皆佛體	한 부테(?)	모든 부터 (모든 부처)	ㄴ
	㉙ 必于化緣盡動 賜隱乃	비루 化緣 <u>므츠샤나</u> (◎)	비록 化緣 <u>다아뫼시나</u> (化緣 끝나 움직이시나)	ㄴ
	㉚ 手乙寶非 鳴良尔	소늘 부비 <u>올이</u> (??)	소늘 부비 <u>올어곰</u> (손을 비벼 올려서)	ㄴ
상수불 학 가	㉛ 皆往焉世呂	<u>니전</u> 누리(?)	모든간 누리 (모든 옛누리)	ㄴ
	㉜ 命乙施好尸 歲史中置	命을 施홀 <u>소히두</u> (○)	命을 施홀 <u>소스히도</u> (命을 施할 사이에도)	=
	㉝ 然叱皆好尸 上下理	<u>그랏기</u> 홀 <u>빈히리</u> (◎)	<u>그럿</u> 모든 홀 <u>디너리</u> (그리 모든 것 하는 일 지너리)	ㄴ
	㉞ 城上人	<u>아으</u> (◎)	<u>아야</u> (아 아)	=
항순중 생 가	㉟ 迷火隱乙根中 沙音賜焉逸良	<u>아보늘</u> 불취 사 <del>마</del> 산 이라(△)	<u>이보늘</u> 불취 사 <del>마</del> 시 니라 (迷惑을 뿌리 삼으 시니라)	=
	㊱ 爲乙吾置同生 同死	<u>홀</u> <u>나두</u> 同生同死 (?)	<u>호야늘</u> <u>나도</u> 同生同死 (하거늘 <u>나도</u> 同生 同死)	ㄴ
보개회 향 가	㊲ 迷反群无史 悟內去齊	이본 물 업시 <u>알리</u> 거져(?)	이반 물 업시 <del>찌</del> <u>드르</u> 거져 (迷惑한 무리 없이 깨달게 하려노라)	ㄴ
총결무 진 가	㊳ 衆生叱邊衣于 音毛	衆生스 <u>깨우미</u> (○)	衆生 <u>가식오모</u> (衆生更生시키고 있 노라니)	ㄴ
	㊴ 此如趣可	이 다이 <u>간</u> (??)	이 <u>곤너겨</u> (이처럼 여겨)	ㄴ

위 <표-1>의 해독과 현대어역은 ‘전차의’, “고연”과 “해독법”에 있는 내용을 가급적 그대로 옮겨 적어 본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위 <표-1>의 ‘혜성가’, ‘원왕생가’, ‘광수공양가’, ‘청불주세가’ 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 3. 세 군데를 다르게 읽은 작품군

#### 3-1. 혜성가

일차적인 해독에서 “고연”과 “해독법”이 다르게 읽고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 ① 舊理: 네→너리, 東戶汀叱: 시스몹궤→실몹궤
- ② 城叱盼良: 잣홀란→자솔랑
- ③ 倭理叱: 예ㅅ→여릿, 軍置: 軍두→軍도, 來叱如: 옷다→앳다
- ④ 烽: 燧→회, 燒邪隱: 술안→티안, 邊也戴耶: 궤 이슈라→어여 수프리아
- ⑤ 岳音: 오름→오름, 見賜烏尸: 보샤올→보시올
- ⑥ 月置: 둘두→드라라도, 八切爾: 부즈리→궤르그시, 數於將來尸: 혀렬→자자렬
- ⑦ 星利: 별→벼리
- ⑧ 白反也: 술뵤여→술바녀
- ⑨ 達阿羅: 돌 아래→드라라, 浮去伊叱等邪: 벵갓더라→벵갓드야
- ⑩ 此也友物北所音叱: 이 어우 므슴ㅅ→이에 버믄 므슴ㅅ  
 擘叱只有叱故: 擘ㅅ기 이실꼬→擘ㅅ 다믄넛고

“고연”, 561쪽. : “해독법”, 127-137쪽.

제①구 ‘舊理’는 양주동이 ‘네’로 읽은 후에 홍기문, 김준영만 그 독법을 따라 읽었고, 다른 해독자들은 ‘理’의 독법을 ‘리’로 본 양주동의 해독에 의문을 가졌다. 그 결과 이탁이 ‘理’를 ‘리’로 읽기 시작하여 정렬모, 김선기, 서재극을 거쳐서 김완진이 ‘너리’로 읽어냄으로써 어학적 해독으로는 비교적 성공적 결과를 얻어 낸 셈이다. 그러나 양주동의 ‘너’나 김완진의 ‘너리’는 모두 ‘예전’이나 ‘옛날’이어서 현대 시어로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곳이다. 시적 의미나 시적 운율이라는 양면성에서 그 두 낱말을 환치시켜 볼 때도 다른 시어가 아니다. 최근 유창균이 이것을 ‘너리’로 읽고 ‘일찌기’로 바꾸어 본 것은 시적 문맥 형성에서 볼 때 오히

려 개악의 요소가 많은 것 같다.

‘東尸汀叱’에서 ‘東’은 양주동이 ‘식’로 읽은 이후 대부분의 해독자들이 그를 따랐으나 흥기문만은 소창진평을 따라 ‘동’으로 읽었다. 그러나 ‘동’이란 자음 밑에 ‘시’이 왔다고 보기보다는 ‘식’이라는 모음 다음에 ‘시’이 있었다고 보아 ‘싯’으로 읽는 것이 무리없는 독법일 것이다. 그리고 ‘尸’는 ‘시’와 ‘리’의 두 가지로 읽어 왔으나 여기에서 ‘식’이 명사라면 ‘尸’는 ‘시’이라야 자연스런 독법일 것 같다. 다만 ‘汀叱’은 이탁, 김준영, 서재극, 김완진처럼 ‘긷’이 될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양주동이 오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시어는 양주동의 해독대로 ‘예전 동해 물가’나 ‘예전 동쪽 물가’가 모두 가능하겠지만 이 노래의 기술과 관련시켜 시적 문맥을 살핀다면 ‘東海 물가’라야 시적 긴장이 일어난다.

제②구의 ‘城叱勝良’은 김완진의 ‘자스랑’과 최근 유창균의 ‘자시홀랑’이란 독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양주동의 ‘갓홀란’에서 ‘란’을 ‘랑’으로 읽은 것 밖에는 더 취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제③구 ‘倭理叱軍置來叱多’에서 양주동은 ‘來叱多’를 ‘왓다’로 읽지 않고 ‘웃다’로 읽는 所以는 풍요의 ‘來如’에서와 같다고 하고, 一字半字之間이라고 하면서 이 시어 외에는 문제가 없는 독법으로 생각하였다.<sup>3)</sup> 그러나 ‘倭理叱’은 대부분의 해독자들이 양주동과 같이 읽었으나 서재극과 김완진은 이것을 ‘여릿’으로 읽었고, 최근 유창균은 ‘와릿’으로 읽었다. 이것은 ‘舊理’의 설명과 같은 것이나 그것처럼 그렇게 순조로운 독법이 아니다. 오히려 양주동의 ‘예시’이 훨씬 무리 없는 독법으로 보인다. ‘軍置’도 양주동의 ‘軍두’가 흥기문이나 김완진의 ‘軍도’보다 당시의 현실에 더 잘 맞는 표기일 것으로 보인다. ‘來叱如’도 김선기의 ‘웁다’나 김완진의 ‘왓다’보다 양주동의 ‘웃다’가 바른 독법일 것으로 본다.

제④구의 ‘烽’을 양주동은 ‘燧’로 읽으면서 地名例에 의하여 ‘烽’을 ‘燧’로 읽었으나 原語를 찾지 못함이 유감이라고 하였다.<sup>4)</sup> 이 시어는 대부분 양주동의 ‘燧’나 소창진평의 ‘烽’으로 읽고 있으나 정렬모가 ‘달불’, 김완진이 ‘뽕’로 읽어 양주동의 ‘유감’에 답하였다. 정렬모의 ‘달불’은 양주동이 인용한 ‘達乙雀’에서 착상된 것이고, 김완진의 ‘뽕’은 烽火의 고유어를 찾아 보려는 노력에서 얻어낸 것 같다. 굳이 고유어를 찾는다면 ‘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燒邪隱’은 소창진평이 ‘살은’으로 읽은 것을 양주동이 ‘술안’으로 교정하여 읽

3) 양주동, “‘고가전’ 제강 및 차의”, 95쪽 참조.

4) 양주동, 앞 글, 95쪽 참조.

은 이래 모든 해독자들이 그렇게 읽어 온 것을 김완진이 ‘티안’으로 읽은 시어다. 그는 자동사 ‘티-(燒)’의 사역형 ‘티안’으로 읽고 현대어 ‘태운’이라 하였다. 이 시어만을 독립시켜 보면 어학적으로는 진실보한 해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시적 문맥으로 본다면 사역형이 되기 어려운 곳이다. ‘봉화를 사른’ 곳과 ‘봉화를 태운’ 곳은 곧 ‘이곳’과 ‘저곳’ 정도로 각기 거리 감각이 다른 말인데 그 전후 문맥으로 보면 ‘이곳’ 정도의 능동적 방향 감각이라야 하기 때문이다.

‘邊也藪耶’는 양주동, 이탁이 ‘邊 也藪耶’로 분석하여 읽었으며, 소창진평, 정렬모, 김선기, 서재극, 김완진이 ‘邊也 藪耶’로 분석해 읽었다. 그리고 홍기문, 지현영, 김준영이 ‘邊也藪耶’로 읽었다. ‘邊’을 ‘ㄹ’으로 읽지 않은 이는 서재극과 김완진뿐이다. 서재극은 ‘모히’로 읽었고 김완진은 ‘어여’로 읽고 있다. 시적 문맥 형성을 순조롭게 충족시켜 주는 것을 찾는다면 아직 양주동의 해독 ‘ㄹ 이슈라’를 능가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곳이다. 어학적으로 더 타당한 또다른 독법이 요청되는 곳인데, 양주동 해독의 의미 범주라야 시가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⑤구의 ‘岳音’을 ‘오름’으로 읽은 양주동은 ‘岳’의 古訓을 ‘오름’으로 正解한 것은 소창진평의 제주도 방언에 의한 正當한 原語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sup>5)</sup> 이 시어는 별 이견이 없는 곳이나 표기법상 ‘오름’이 ‘오름’보다 바른 표기일 것이라는 견해가 정렬모에서부터 제기되어 나왔다. ‘見賜烏乙’은 소창진평부터 거의 모두가 ‘보사울’로 읽어 왔는데, 서재극과 김완진, 유창균 등이 ‘보시울’로 읽었다. 단순한 표기상의 문제지만 ‘시’가 ‘샤’보다 얼마나 더 올바른 해독인지는 쉽게 판단되지 않는다.

제⑥구의 ‘月置’는 양주동이 ‘돌두’로 읽고, 소창진평이 ‘돌도’로 읽은 후 이 두 가지 해독뿐이었으나 김완진만 유독 ‘드라라도’로 읽었다. 어떻게 읽든 현대 시어로는 ‘달도’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시어다. 앞의 세 가지 해독은 모두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만 가장 자연스런 해독이 어떤 것인가와 시적 운율이란 두 측면에서 본다면 양주동의 ‘돌두’가 가장 성공적이다.

‘八切爾數於將來戶’를 ‘브즈리혀랄’로 읽은 양주동은 ‘八切爾’를 ‘브즈리’로 읽은 것은 고심의 바른 해독이라 하고, ‘數於’ 두 자를 訓借로 보아 ‘혀(點燈)’로 본 것은 노래의 뜻으로 해독의 단서를 찾은 고심의 터득이라고 하였다.<sup>6)</sup> 양주동 이후 대부분의 해독자들이 그를 따라 읽었으나, 이탁의 ‘불긋우’, 정렬모의 ‘불기리’, 유창균의 ‘불긋이’가 유사계열의 해독법이고, 김완진의 ‘ㄱ르그시’가 어법적으로는

5) 양주동, 앞 글, 96쪽 참조.

6) 양주동, 앞 글, 96쪽 참조.

이해하기 용이한 해독이다. 그러나 김완진의 해독대로라면 ‘갈라 그어’란 시어에서 해독 중 최악의 시적 문맥을 만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양주동의 해독에 따르면 “달도 부지런히 등불을 켜는데”라는 것이어서 세련된 시적 메타포와 원왕생가와 정음사 등과 유사한 한국시의 전통적인 표현 문법을 읽어낼 수 있는데, 김완진의 해독대로라면 “달도 갈라 그어 잣아들려 하는데”가 되어서 조악한 시어로 의미가 충돌되는 시적 문맥을 만들어 낸다. 양주동의 해독이 어학적으로 볼 때 아주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그의 해독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數於將來尸’도 위와 같은 까닭에서 양주동의 ‘혀혈’이란 해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탁의 ‘잣아웃’, 김선기의 ‘잣을’, 김완진의 ‘자자렐’은 유사계열의 해독법이라 할 수 있는데 어문학적으로 양주동의 해독을 능가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제⑦구 ‘星利’를 ‘별’이 아닌 ‘벼리’로 읽은 것은 홍기문부터인데 해독법상으로는 진일보한 것이나 현대어로 바꾼 시어 ‘별’은 양주동의 ‘별’이란 해독과 같은 것이다.

제⑧구 ‘白反也’는 양주동의 ‘술분여’를 김완진이 ‘술바녀’로 표기체계의 통일 을 시킨 곳이다. 이 해독은 어문학적으로 성공한 것 같다.

제⑨구 ‘達阿羅’는 양주동의 ‘돌아래’나 김완진의 ‘드라라’ 계통은 모두 현대어로 ‘달은’이란 시어가 되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별문제가 없으며 남는 문제는 어학적인 문제뿐이다. 최근 유창균은 ‘달아라’로 읽고 ‘山 밑으로’란 현대 시어로 보았으나 발전된 해독으로 보이지 않는다. ‘浮去伊叱等邪’는 양주동의 ‘벼갯더라’의 ‘더라’를 김완진이 ‘드야’로 읽은 곳인데, 현대 시어로는 양주동의 ‘떠갯더라’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정렬모와 김완진만 ‘드야’로 읽었는데 ‘等邪’만 독립시켜 본다면, 이 두 가지 독법이 모두 가능한 것 같다.

제⑩구 ‘此也友物北所音叱’은 양주동이 가장 난해한 곳이란 표현을 쓴 곳이다. 그는 ‘也友’를 감탄사 ‘어우’로 풀이하고 ‘物北所音叱’을 ‘므슴’의 속음 ‘뭇슴’으로 풀이하여 대체의 뜻만은 통했으나 ‘北’자가 ‘叱’자의 오자임을 전제한 풀이라고 하였다.<sup>7)</sup> 이곳이 난해치인 것은 그 뒤 여러 해독자들의 분석방법을 보면 선명히 드러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此也友物北所音叱

7) 양주동, 앞 글, 96쪽 참조.

- (가) 소창진평 지현영: ①② ③④⑤ ⑥⑦⑧  
 (나) 양주동: ① ②③ ④⑤⑥⑦⑧  
 (다) 이탁: ①(②) ③④ ⑤⑥⑦⑧  
 (라) 흥기문: ①②③ ④⑤⑥⑦⑧  
 (마) 정렬모, 김선기, 서재극, 김완진, 유창균: ①② ③④ ⑤⑥⑦⑧  
 (바) 김준영: ①②③ ④⑤⑥⑦⑧

이 6가지 유형 중 최근의 어학적 해독은 (마)쪽에 기울고 있다. 그러나 (마) 유형의 해독 역시 각양각색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龔叱只有叱故’ 역시 양주동이 ‘龔叱只’를 ‘龔入’기로 읽은 것은 創見의 득의처라고<sup>8)</sup> 한 것과는 달리 김완진은 ‘龔叱’을 ‘龔入’으로 읽고 ‘只有叱故’를 ‘다므닛고’로 읽어 앞 시어의 해독을 합리화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래서 양주동의 해독대로라면 “이보아 무슨 혜성이 있을꼬”가 되며, 김완진의 해독을 따른다면 “이에 어울릴 무슨 혜성을 함께 하였습니까”가 된다. 양주동 이후의 해독들이 부분적으로는 다소 어학적인 진보를 보이고 있는 듯하지만 그것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또다른 무리를 빚고 있어서 그렇게 속단하기도 어렵다. 문학적으로 본다면 양주동의 해독이 가장 성공적이며 거의 완벽한 시적 문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혜성가는 그 기술물에 명기된 바와 같이 “혜성의 변괴를 소멸(屋怪則滅)”시킨 呪歌이면서 동시에 전쟁주가이기도 하다. 주가의 몇 가지 시문법 중 혜성가는 선택적 달성 유형의 주가에 속한다. 이 시문법은 목적하는 바를 시문맥 안에서 선택적으로 달성해 버리는 것을 그 본질 구조로 삼고 있다. 보기를 들자면 향가 중에서 서동요와 같은 것인데 우리의 전통시에 광범하게 분포되어 있다. 서동요의 제③-④구 “맛등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는 선화공주가 서동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안아 버린 것으로 되어 있다. 서동이 목적하는 바를 선택적으로 달성시킨 시문법이다.<sup>9)</sup> 혜성(일본병)이 나타나 그것을 퇴치시키려는 목적에서 이 노래를 부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노래 속에서는 혜성이 이미 없어져 버렸다는 표현이 곧 “무슨 혜성이 있을꼬”라는 것으로 혜성이 이미 없어져 버렸다는 선택적 달성의 표현 문맥인 것이다. 양주동의 해독과 다른 해독으로는 이와 같은 시적 문맥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

8) 양주동, 앞 글, 96쪽 참조.

9) 임기중, “향가의 주사적 시문법”, 동국논총 32집, (서울, 동국대, 1993), 1-23쪽 참조.

3-2. 원왕생가

일차적인 해독에서 “고연”과 “해독법”이 다르게 읽고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 ① 月下伊底亦: 둘하 이데→드라리 엇데역
- ② 去賜里遣: 가사리고→가시리고
- ③ 佛前乃: 佛前에→佛前的
- ④ 惱叱古音多可支: 님곰다가→ㄹ곰 함죽, 白遣賜立: 숲고샤셔→숲고쇼셔
- ⑤ 尊衣希仰支: 존어히 울위리→므릭웃 브라 울위러
- ⑥ 集刀花乎白良: 모도호술바→모도 고조술바
- ⑧ 慕人: 그릴 사롬→그리리, 白遣賜立: 숲고샤셔→숲고쇼셔
- ⑨ 阿邪: 아으→아야, 此身: 이몸→이모마
- ⑩ 成遣賜去: 일고살까→일고실가

“고연”, 497쪽 : “해독법”, 110-119쪽

제①구 ‘月下伊底亦’을 ‘둘하 이데’로 읽은 양주동은 ‘伊底亦’이 ‘이데’임은 바른 해독이지만, 문헌상으로는 ‘이제’뿐임이 좀 미안하다고 하였다.<sup>10)</sup> 그는 ‘둘하’를 달리 읽는 것은 허용치 않고 있으며 ‘伊底亦’의 해독에 대해서만 다소 미흡함을 밝히고 있다. 이 부분의 해독은 ‘月下 伊底亦’과 ‘月 下伊底亦’으로 분석해 읽은 두 계열이 있다. 양주동 이하 대부분의 해독자들이 전자를 택하고 있으나 정렬모, 김선기, 김완진 등은 후자를 택하였다. 김완진은 ‘月下伊’를 ‘月羅理’의 異樣表記로 보고 모죽지랑가에 두 번 쓰인 ‘下是’가 ‘아리’인 것과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드라리’는 현대어 ‘달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찬기파랑가 ‘安支下’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下’를 音借의 ‘하’로 읽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향가에서 ‘下’가 音借 ‘하’와 訓借 ‘아리’라는 두 가지의 해독이 어학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밖의 남은 문제는 이른바 문학적 해독으로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돌아리’는 김완진 등이 ‘달이’로 보는 것과는 달리 ‘달 아래’로도 읽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자라면 달이 주어로, 후자라면 달아래가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쓰인 시어다. 그리고

10) 양주동, 앞 글, 94쪽 참조.

양주동처럼 ‘돌하’가 ‘달님이시어’라면 정읍사의 ‘돌하’처럼 호격 조사로 쓰인 시어일 것이다. 따라서 문학적 해독에서는 어학적 해독의 ‘달이’, ‘달 아래’, ‘달님이시어’ 중에서 시문법에 가장 적합한 어느 하나의 시어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시적 문맥으로는 ‘달님이시어’가 가장 적합한 시어다.

대부분의 해독자들이 ‘伊底亦’을 ‘이데’ 곧 ‘이제’와 ‘이적’으로 읽은 것은 모두 양주동의 해독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소창진평과 김선기가 ‘민예’로 읽었으며 유독 김완진만이 ‘엇예역’으로 읽었다. 그는 향가의 시어 어두에서 ‘伊’를 음독이나 훈독을 하여 ‘이’로 읽은 예가 없다고 단정하면서 새로운 해독법을 모색해 냈다. 최근에 유창균은 ‘伊底亦’ 곧 ‘이 어느제’로 읽고 ‘이 언제쯤’이라는 시어로 보았다. 여기서 ‘민예’로 읽은 것은 어법에 맞는 독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면 나머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의문 부사 ‘어째서’, 시간을 나타내는 의문 부사 ‘언제쯤’ 중에서 시문법에 맞는 하나의 시어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시적 문맥으로는 ‘이제’가 가장 적합한 시어다.

제②구 ‘西方念丁’을 ‘서방사장’으로 읽은 양주동은 ‘念丁’이란 난해어를 ‘사장’의 속음 ‘찌정’으로 풀이한 것은 고심한 나머지의 착상이지만 原注대로 ‘念’의訓 ‘걱정’의 고증이 부족하다고 하였다.<sup>11)</sup> 그러나 지현영, 김완진 등은 양주동의 해독에 전적으로 좌단하고 있으며 김선기의 ‘가댕’도 이 계열의 해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으로’(소창진평), ‘더드’(이탁), ‘너러’(홍기문), ‘너메’(정렬모), ‘넙다’(김준영), ‘숫뎡’(서재극), ‘외오더’(유창균)와 같은 이색적인 해독들이 속출하였다. 그러나 어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사장’ 곧 ‘까지’를 능가하는 만족할만한 해독은 찾아지지 않는다. 가령 서재극이 이를 ‘스쳐서’(?)라고 본 것이나 유창균이 ‘念하려’라고 한 것 등이 모두 어학적 해독으로서도 만족할 수 없지만, 그런 해독이 원만한 시적 문맥을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있다. ‘달이 西方을 스친다’거나, ‘달이 西方을 念한다’는 것은 불교적인 發願의 맥락에서는 상정해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시에서는 물론 다른 어떠한 문학 작품에서도 찾아지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까지’ 이외 별다른 해독 대안이 없는 시어다.

‘去賜里遺’을 ‘가사리고’(소창진평, 양주동, 홍기문, 지현영, 김선기 등)와 ‘가사리고’(정연찬, 서재극, 김완진, 유창균)로 읽은 두 가지 해독을 어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가사리고’가 훨씬 더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학적 측면에서는 ‘시’라는 해독이 어학적인 해독에서처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

11) 양주동, 앞 글, 94쪽 참조.

다. 그것보다는 어학적 해독에서 별 이견이 없는 ‘리고’가 ‘가셔서’(소창진평, 양주동, 김선기)라는 나열형 어미인지 아니면 ‘가시겠습니까?’(이탁, 홍기문, 김준영, 서재극, 김완진, 유창균)라는 의문형 어미인지가 훨씬 더 중요시된다. 앞에서 거론한 문제들을 시문맥 형성이란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제①구와 제②구의 어학적 해독의 쟁점들을 모아 그것을 현대 시어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달님이시여 (달이, 달 아래) 이제(어째서, 언제쯤)
- ② 西方까지 가셔서(가시겠습니까)

이 제①구와 제②구의 시어의 조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상정해 볼 수가 있다.

- (가) 달님이시여 이제 西方까지 ①가셔서(②가시겠습니까)
- (나) 달님이시여 ①-②언제쯤(①-②어째서) 西方까지 ①-②가셔서 (①-②가시겠습니까)
- (다) 달이 이제 西方까지 ①가셔서(①가시겠습니까)
- (라) 달이 ①-②어째서(①-②언제쯤) 西方까지 ①-②가셔서 (①-②가시겠습니까)
- (마) 달 아래 ①-②언제쯤(①-②어째서) 西方까지 ①-②가셔서(①-②가시겠습니까)

이 시는 불교의 往生을 원하는 원왕생가다. 往生에는 極樂(西方)왕생, 十方왕생, 兜率왕생 등이 있다. 이 작품의 제③-④구 ‘무량수불전에 일러다가 사퇴소서’는 “무량수경”에 설해진 아미타불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곧 극락왕생을 바란 노래임을 알려 준다. 그리고 왕생에는 불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왕생하는 念佛왕생, 착한 행위로 왕생하는 諸行왕생, 염불의 도움으로 諸行을 닦아 왕생하는 助念佛왕생이 있는데, 이 시와 기술물은 광덕의 諸行왕생과 엄장의 助念佛왕생을 예시한 것으로 보인다. 광덕이 신 삼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는 것과 아내와 10년간 추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행왕생과 조념불왕생의 방법 일 것이다.

이 원왕생가의 기술물 첫단락에 광덕이 西方세계로 먼저 가면서 그의 道伴인

엄장에게 “속히 나를 따라 西方세계로 오라(速從我來)”고 한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기술물에는 광덕과 엄장이 서로 경쟁적으로 하루 빨리 西方세계로 먼저 가기 위해 용맹정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탐·진·치 三毒으로 이루어진 예토 중생계를 하루 속히 떠나 깨달음의 淸淨光明覺의 세계 西方정토로 가고 싶어 그 원을 담은 노래가 원왕생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원왕생가의 작자는 본문 ‘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광덕이나 그 처가 아니며 발원자들의 공동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완성을 가진 시어 의문 부사(언제쯤, 어째서)나 의문형 어미 ‘가시겠습니까’는 이 작품의 기술물 내용이나 시적 정조에 전혀 걸맞지 않다는 단서가 된다. 이 시는 첫구부터 긴축성의 시어와 아울러 그런 긴축과 긴장의 조직이 요청되고 있다. 그런 요청에 호응하는 시어가 곧 시간 부사인 ‘이제’ 또는 ‘이제 곧’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시간 부사는 ‘가서서’라는 동사의 연결형과 결합되어야만 속도감을 더하는 긴축의 시문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가시겠습니까’라는 의문형 어미는 의문 부사 ‘언제쯤’이나 ‘어째서’와 같이 ‘-리고’를 의문형 어미로 보는 어학적 해독에 동의하지만 작품 내부의 상황논리로 본다면 연결형 어미가 훨씬 더 시적 표현이다. 그뿐 아니라 향가 제②구의 어미는 대부분 연결형 어미를 기본 구조로 삼고 있으며 종결형 어미로 된 작품은 찾아 보기 어렵다.

제①구의 ‘달님이시여(달이, 달 아래)’는 제②구에 오는 西方세계가 ‘달 아래’라는 방향으로 지칭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적 맥락에서는 ‘달님이시여’와 ‘달이’만이 거론 대상이 된다. 시어로서 ‘달이’가 靜態의 표현이라면 ‘달님이시여’는 다분히 정감적인 표현이다. 우리의 전통시가에서 첫행 첫구를 이 시의 ‘달님이시여’와 같이 호칭어로 시작하는 발어법은 구지가나 해가의 ‘거북아, 거북아’를 비롯해서 그 뒤 정음사, 사리화 등 여러 시 작품들에 쓰여 왔다. 특히 불교가요에서는 이 시의 ‘달님이시여+사뢰소서’와 같이 ‘호칭+소원’을 첫 1-2행의 관용적 시문법으로 즐겨 써 왔다. 그런 작품으로는 불교가사 승원가, 법문곡, 몽환가, 별회심곡, 특별회심, 속회심곡, 권설인과곡, 수선곡, 선심가, 광제가, 반회심곡, 가가가음 등이 있는데, 이런 작품군에서는 모두 ‘중생’, ‘시주님’, ‘주인공’ 등 다양한 대상을 호칭하여 소원으로 연결하는 시문법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이 한 작품의 내적 조직 현상들로 미루어 볼 때 이 시의 제①-②구는 양주동의 해독 ‘달님이시여, 이제(곧) 西方까지 가서서’가 다른 해독자들의 해독에 비해서 비교적 무리 없이 자연스런 시문맥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다.

제③구의 ‘무량수불전에’는 ‘에’나 ‘의’가 모두 현대어로는 ‘에’에 해당하므로

문학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제④구의 ‘惱叱古音多可支白遣賜立’를 ‘닐곰다가 숲고샤셔’로 읽은 양주동은 “‘惱叱’을 ‘니르(云)’의 원형 ‘닐’으로 해독한 것은 가상하나, 단 ‘곰’은 근고어에 동사 기본형 밑에 직결된 예가 없다”고 하여 해독의 미흡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多可支’의 ‘支’를 강세 침미소 ‘只’의 통음자로 본다면 ‘다각’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sup>12)</sup> 양주동의 ‘닐곰다가’를 그대로 따른 이는 지현영뿐이며 나머지 해독자들은 각기 다양한 해독법으로 읽어 난맥상을 보인 시어다. 원문부터 향가 중 유일하게 ‘惱叱古音’을 ‘鄉言云報言也’라고 間注하고 있으므로 표기 당시의 해독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김완진은 양주동의 해독에서 먼저 의미 맥락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말하다가 말씀하소서’란 표현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김완진은 ‘보고의 말씀을 빠짐없이 사뢰소서’로 읽었다. 그가 이와 같이 해독한 근거는 間注 ‘報言’에 있다. 최근 유창균은 ‘발원의 말씀 한없이 사뢰고자 하나이다’로 해독하고 있다. 김완진과 유창균의 해독 발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해독 결과 또한 서로 가깝다. 이 두 가지의 해독이 어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이전 것들보다 더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제⑤구 ‘贅音深史隱’을 ‘다딤 기프산’으로 읽은 것에 대하여 양주동은 “‘贅’의 古訓이 분명치 않으므로 ‘贅音’을 아직 ‘다딤’으로 읽어두었다. 약간 불안하나 그대로 맞은 듯” 하다고 하였다.<sup>13)</sup> 그러나 양주동 이후 ‘다딤’을 그와 다르게 읽은 해독자는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양주동이 문제 삼지 않았던 ‘尊衣希仰支’의 해독에 있어서 그와 다른 견해들이 많았다. 그러나 현대어로 바꾸었을 때 시어에서 다소의 문제가 나타난 것은 ‘尊衣希仰支’를 ‘머릿옷 보라 울워러’로 읽은 김완진의 해독뿐이다. 김완진은 이것을 ‘서원 깊은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라고 하였다. 양주동의 ‘우러러’가 ‘우러러 바라보며’로 달라진 것이다. 어학적으로는 김완진의 해독이 더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곳이다. 그러나 시적 문맥에서는 이 시에서의 무량수불이 가시적인 것이라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러러 바라보며’ 보다는 ‘우러러’가 더 시적이다. 시어의 본질적 함축미로 볼 때도 ‘우러러’가 더 아름다운 시적 문맥을 만들어내므로 김완진의 해독을 따른다고 해도 결국은 ‘우러러’로 현대어역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⑦구 ‘集刀花乎白良’의 ‘花乎’를 김선기, 김준영, 김완진, 유창균 등이 ‘고조’로 읽은 것은 어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전일보한 성공적 해독이라 할 수 있다.

12) 양주동, 앞 글, 95쪽 참조.

13) 양주동, 앞 글, 95쪽 참조.

‘두 손을 모아 올려’ 보다는 ‘두 손을 곧추 모아’가 더 불교적 경건성을 함축한 시어기 때문이다. 승掌은 열 손가락을 합하는 것인데, 손가락만 합하고 손바닥을 합하지 않는 것은 생각이 흩어진다고 하여 불교의례에서 금기시되고 있다. ‘곧추 모아’는 열 손가락과 손바닥을 완전히 합한다는 것이므로 이 시의 문맥을 적확하게 밀착시킨 성공적 해독이다. 제⑦-⑧구는 현대 시어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곳이다. 따라서 제⑤-⑧구는 ‘다짐 깊으신 부처님 우리러 원왕생원왕생 두 손을 곧추 모아 그리는 사람 있다고 사죄소서’로 현대역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⑨구의 ‘阿那 此身’은 양주동이 ‘아오 이몸’이라 읽은 것을 김완진이 ‘아야 이모마’로 읽었는데 현대 시어는 양주동과 하등 다른 것이 없다. 어학적으로도 발전적 해독이라 하기 어려운 곳이다.

제⑩구의 ‘成遺賜去’는 양주동이 ‘일고살까’로 읽은 이래 대부분의 해독자들이 그 계통(살/실/샤/시가)의 해독을 했으며, 정렬모가 ‘이뤄겨샤서’, 김선기가 ‘닐고샤쇼’, 유창균이 ‘일우고시리’로 읽었다. 후자의 해독 근거는 ‘去’가 ‘立’의 오자로 보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의 또다른 주장은 이것이 의문형 어미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반드시 의문 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견해 모두 설득력이 희박하다. 그 까닭은 첫째 오자로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다음은 전자처럼 읽어야 정상적인 시문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 이 몸을 남겨 두고 사십팔대원을 이루실까’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아니며, 이 몸이 이 중생계에 있는 한 무량수불은 사십팔대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평서문이다. 시적 운율과 시어의 응축적 기교와 맛을 한껏 더해 주는 시적 종결 어미다. 무량수불은 중생 구제의 48대 本願을 성취시켜 성불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런 발원을 하는 것이다. 불교가요에 빈번히 쓰인 그런 시적 표현의 관용구 중 별회심곡에 있는 한두 구절을 소개해 보겠다.

배고픈이 밥을 주어 아사구제 하였는가  
 헐벗은이 옷을 주어 구난공덕 하였는가  
 좋은곳에 집을 지어 행인공덕 하였는가  
 목마른이 물을 주어 급수공덕 하였는가  
 병든사람 약을 주어 활인공덕 하였는가  
 높은산에 불당 지어 중생공덕 하였는가

앞의 의문형 어미는 모두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단정하는 평서

문을 시적 어미로 바꾼 것들이다. 따라서 제⑨-⑩구를 현대어로 바꾸면 ‘아! 이 몸을 남겨 두고 사십팔대원을 이루실까’라는 해독이 시적 문맥에서 볼 때 별 무리가 없는 좋은 해독이라 할 수 있다.

### 3-3. 광수공양가

일차적인 해독에서 “고연”과 “해독법”이 다르게 읽고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 ① 火條: 브져→불줄
- ④ 逸留去耶: 이루가라→이루거야
- ⑤ 手焉: 소논→썸은, 毛叱色只: 못도룩→업드룩
- ⑥ 手良海如: 소내마다→ 썸아마다
- ⑧ 周物叱: 드못→온갖
- ⑨ 法供沙叱: 法供사→法供삿, 多奈: 하나→하내
- ⑩ 伊於衣波: 이 어의바→더를니버

“고연”, 721쪽. : “해독법”, 169-173쪽.

제①구 ‘火條’의 해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이 있다.

- (가) 火窠(부젓가락): 소창진평
- (나) 브져(부젓가락): 양주동, 이탁, 지현영, 김선기
- (다) 불가락(부젓가락): 홍기문
- (라) 불고지(불꽃): 정렬모
- (마) 火條(불을 옮겨 붙이는 나뭇가지): 김준영
- (바) 불줄(등불을 매어 다는 줄): 김완진
- (사) 불더(부지깅이): 유창균

이와 같이 첫째 부젓가락으로 해독한 것(가, 나, 다), 둘째 불꽃으로 해독한 것(라), 셋째 불을 옮기는 나뭇가지로 해독한 것(마), 넷째 등불을 매어 다는 줄로 해독한 것(바), 다섯째 부지깅이로 해독한 것(사) 등 다섯 가지가 있다. 이 부분은 어학적인 해독보다는 문학적인 해독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곳이다.

어학적으로는 위의 여러 해독처럼 읽을 가능성이 있지만 문학적으로는 어떤 시어인가에 따라서 사투 다른 시상의 작품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이 노래는 광수공양가다. 광수공양이란 불·법·승 三寶에 귀의하여 널리 공양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공양이란 身分공양과 心分공양 모두를 지칭한 용어로서 보현행원품소에 나오는 財와 法과 觀行이란 三種공양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法供養은 중생에게 여러 법문을 설하여 그들을 佛法의 큰 바다에 들게 하는 공양이다. “施燈功德經”에 보면 불·법·승을 믿어서 작은 등불[燈明]을 갖추어도 그것에 의해서 받는 은총이 한량없다고 하였다. “賢愚三經”에는 부자의 萬燈과 가난한 여인의 꺼지지 않는 一燈의 비유가 있다. 꺼지지 않는 燈으로 참된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밤낮없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밝히는 등을 常燈, 常夜燈, 長明燈이라고 하는데, 그 연료에 따라서 酥油燈과 香油燈이 있다. 수유등과 향유등은 모두 그 불심지를 부젓가락으로 들우어야 꺼지지 않는 長明燈의 구실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어학적으로는 김완진의 ‘불줄’이 돋보이는 해독이나 시적 문맥에서 보면 이곳에는 ‘부젓가락’이 올 수밖에 없다. ‘集音馬’는 양주동, 지현영의 ‘자부며’보다는 홍기문의 ‘자붐마’나 김완진의 ‘자부마’가 정도를 따른 해독법일 듯하며 그렇게 읽어도 현대 시어로는 결국 양주동의 ‘잡으며’일 것이다.

제④구의 ‘逸留去耶’는 ‘耶’를 ‘라’로 읽느냐 ‘야’로 읽느냐가 주된 쟁점이었다. 양주동 이하 대부분의 해독자들이 ‘라’로 읽었으나 홍기문, 정렬모, 김완진 등이 ‘야’로 읽고 있다. 이것은 ‘耶’를 만족시켜 주는 해독법이 ‘야’라는 데서 출발한 것인데 필자가 이미 거론한 바 있으므로<sup>14)</sup> 이 글에서는 줄인다. 양주동의 ‘이루가라’나 김완진의 ‘이루거야’가 모두 현대 시어로는 ‘이루었네’가 되므로 문학적 해독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곳이다.

제⑤구의 ‘手焉’은 양주동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독자들이 ‘손’으로 읽었으나 김완진만 ‘좁은’으로 읽은 시어다. 이 시에서의 ‘손은’과 ‘좁은’은 전혀 다른 시어여서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김완진이 그렇게 읽은 까닭은 한역 시의 ‘ 좁 ’에 대응되는 곳이란 점과 “화엄경” 해당 부분에 여러 가지 좁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노래에서 등을 고치는 일은 손으로 하지만, 법계가 다하도록 영원무궁하리라는 기원을 손에 바친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시는 제①-④구에서 부젓가락으로 佛前燈의 심지를 들우어서

14) 임기중(1992), 고전시가의 실증적 연구, (서울, 동국대출판부), 188-190쪽 참조.

영원한 長明燈을 밝히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수미산처럼 무한한 등불 심지를 큰 바다처럼 많은 기름에 담가서 부젓가락을 움직이는 손놀림을 그침없이 계속하겠다는 것이므로 제⑤-⑥구의 '손은 법계 다하도록 하며'란 끊임없이 손을 눌러 불심지 돋우기를 法界가 없어질 때까지 하고, 나아가서 중생들이 自利와 利他的 法公양을 두루 하기 때문에 '손마다 法供養'이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기원을 손에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며 중생들이 각기 손마다 불심지 돋우는 法公양을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좁은 法供養이라기 보다는 財供養일 것이므로 시적 문맥 형성에서 볼 때 김완진의 '향마다 法公양'이란 충돌과 모순을 가져온다. '手焉'은 '손은'으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다. '毛叱色只'를 '뭇도록'으로 읽은 양주동은 '色只'가 '巴只'의 오자임은 소창진평이 이미 간파한 바라 하고 다만 '巴只'를 '도록'으로 읽는 까닭은 '巴'의 俗訓을 '도로'로 가정한 것이라고 하였다.<sup>15)</sup> 이것을 김완진은 '업드록'으로 읽었다. 대부분의 해독자들이 양주동의 해독법에 좌단하고 있으나 김완진만이 그들과는 달리 '업드록'으로 읽고 있는 곳이다. 양주동의 '다하도록'까지나 김완진의 '없어지기까지'는 시적 문맥으로 볼 때 모두 가능한 해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계 다하도록'이 '법계 없어지기까지'보다는 더 세련된 시어라고 할 수 있다. 제⑥구의 '手良每如'는 앞과 같은 까닭에서 김완진의 '썸아마다(향에마다)'보다는 '소내마다(손마다)'를 따를 수밖에 없다.

제⑧구의 '周物叱'을 '드뭇'으로 읽은 양주동은 이 곳은 鈞여대사의 노래 중에서 가장 난해한 곳이라 하고 이를 '도뭇'으로 읽거나 '스뭇'으로 읽거나 둘 다 불안한 점이 있다고 하고 이설을 기다린다고 하였다.<sup>16)</sup> 양주동의 '드뭇'을 그대로 따른 이는 이탁뿐이나 홍기문도 '두루'라 읽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양주동의 해독과 같은 것이다. 그밖에 '周物叱'과 '한물', '들들' 등의 해독법이 제시되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시어다. 그러다가 김완진이 이것을 '온갓'으로 읽어냈다. 최근 유창균도 이 해독에 좌단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양주동의 해독에 따르면 '부처님마다 두루 공양하옵고자'가 되며, 김완진의 해독에 따르면 '佛佛 온갓 供하옵저'가 된다. 여기서 '온갓 供'을 한다면 많은 財供養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두루 공양'을 한다면 여러 부처님께 法供養을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노래에서의 공양은 중생이 佛法의 大海에 들게 하는 自利와 利他的 法公양이므로 '온갓'보다는 '두루'가 시적 문맥에 더 적합한 것이다. 이런 의미망 안에서 새로운 해독법을 찾아 내야 할 것이다.

15) 양주동, 앞 글, 98쪽 참조.

16) 양주동, 앞 글, 98쪽 참조.

제⑨구의 ‘法供沙叱’을 양주동이 ‘법공사’로 읽은 것을 지현영이 ‘법공삿’, 김완진이 ‘법공쌩’으로 모색해 읽은 것은 현대 시어로는 모두 ‘法供養이야’가 될 것이므로 현대 시어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다. ‘多奈’는 양주동이 ‘하나(많은나)’로 읽은 것인데, 이것을 김완진이 ‘하내(많은지만)’로 읽은 것은 시적 문맥에 서는 크게 문제되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김완진의 ‘佛供’이어서는 안 되며 양주동의 ‘法供’이어야 옳다.

제⑩구의 ‘伊於衣波’를 ‘이 어의바’로 읽은 양주동은 ‘於衣波’를 격리하여 감탄사로 읽은 것은 의심을 용납하지 못할 듯하다고 하였다.<sup>17)</sup> 양주동 이후 홍기문, 지현영, 김준영 등이 모두 이에 좌단하고 그밖의 다른 해독자들도 이 해독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김완진에 와서 ‘더를 니버’라는 새로운 해독법이 제시된 곳이다. 그는 현대 시어로 바꾸면 ‘저를 體得하여’라고 하면서 이 때 ‘저’란 제⑥구의 ‘法供’을 가리키는 지시어라고 하였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이 제⑩구는 ‘法供을 체득하여 最勝供이여’라는 시적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하여 ~하여’라는 반복적인 시적 어미가 놓일 수 없는 곳이며 설사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시적 문맥 형성이 매우 부자연스럽게 된다. 이곳은 제⑨구의 ‘법공양이야 많은나(많은지만)’를 제⑩구에서 ‘이것(부젓가락)’으로 불심지를 둔우어서 長明燈을 부지런히 끊임없이 밝히는 것)이야말로 법공양 중에서도 가장 큰 공양이라’고 노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양주동의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양이로다’가 시적 문맥에 혼란을 주지 않는 해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어의바’는 ‘이것이야말로’라는 감탄사라기보다는 강조의 의미를 가진 지시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伊波’는 ‘이바’나 ‘더바’가 모두 가능한 해독인데 굳이 ‘더바’로 읽어야만 할 까닭이 발견되지 않는다.<sup>18)</sup>

### 3-4. 청불주세가

일차적인 해독에서 “고연”과 “해독법”이 다르게 읽고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 ① 皆: 한→모든
- ② 盡動賜隱乃: 冥초샤나→다아 뉘시나

17) 양주동, 앞 글, 98쪽 참조.

18) 임기중, 앞 책, 190-211쪽 참조.

- ③ 鳴良尔: 울이→울어곰
- ⑤ 曉留: 새배루→붉논, 朝于萬: 아침→아침 가만
- ⑥ 朋知良闕尸也: 빈 아라세라→빈 아라 고티리여
- ⑦ 伊知皆矣: 알기→더 알기, 爲米: 드외매→드외매
- ⑧ 道尸迷反: 길 이본→길 이반, 群良: 물→물아, 哀呂舌: 슬흘썬→설보리여

“고연”, 800쪽. : “해독법”, 188-192쪽.

제①구의 ‘皆佛體’를 ‘한 부테’로 읽은 양주동은 ‘皆’가 ‘한’에 해당하는가는혹 再考를 요하는 듯하다고 하였다.<sup>19)</sup> 이후 지현영만 양주동의 해독에 좌단하고 이탁의 ‘몸’을 거쳐서 홍기문, 김준영, 김완진의 ‘모든’이란 해독이 나타났다. 그러나 양주동이 ‘모든’이란 해독법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상수불학가의 ‘皆佛體置’를 읽을 때 ‘모든’은 餘律이 생기기 때문에 ‘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노래에서 ‘皆’를 ‘한’으로 읽는다면 不足律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이므로 ‘모든’을 택하는 편이 어문학적 해독을 모두 충족시켜 주는 것이 될 것이다.<sup>20)</sup> 그러나 현대 시어로는 양주동의 ‘한’이나 그의 다른 이들의 ‘모든’이나 결국 ‘모든’이 되므로 시적 문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곳이다.

제②구의 ‘盡動賜隱乃’를 ‘므츠샤나’로 읽은 양주동은 ‘盡動’을 ‘마치다(畢)’의 戲書로 보아 ‘뭇’으로 읽은 것은 고심의 터득이라고 하였다.<sup>21)</sup> 이 부분의 해독은 그 접근 방법에서 ‘盡動’을 한 시어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盡’과 ‘動’을 각기 독립된 두 시어로 읽을 것인가가 문제였다. 양주동, 홍기문, 지현영 등이 ‘므츠샤나’로 읽는 것은 전자에 속하며, 소창진평의 ‘다오아 움죽이샤나’, 정렬모의 ‘다 뭐산나’, 김선기의 ‘다아 뭐산나’, 김준영의 ‘므츠 뭐샤나’, 김완진의 ‘다아 뭐시나’는 모두 후자에 속한다. 어학적 해독에서만 본다면 김완진의 ‘다아 뭐시나’는 발전적인 해독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노래의 시적 문맥으로 본다면 그런 해독을 받아드릴 수가 없다. 이 노래는 청불주세가이므로 請佛世尊의 因緣性을 청하는 노래다. 따라서 김완진의 해독처럼 ‘化緣이 끝나 움죽이시나’라는 현재시상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움죽이시나’는 시적 긴장을 이완시키고 함축미를 파괴하는 산문어로 전락되고 만다는 점도 문학적 해독에서는 지적하지

19) 양주동, 앞 글, 100쪽 참조.  
 20) 임기중, 앞 책, 186-187쪽 참조.  
 21) 양주동, 앞 글, 100쪽 참조.

않을 수 없다. 이곳은 ‘교화의 인연을 이미 마치셨으나’라는 의미를 가진 어학적 해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③구의 ‘鳴良尔’를 ‘올이’로 읽은 양주동은 ‘尔’를 ‘爾’의 俗字로 보아 ‘올이’로 읽고, 이것은 타동사가 부사로 仍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어감상 필경 불안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別解가 없을까? ‘尔’이 이두에서 ‘금’으로 읽혀짐에 鑑하여 ‘올려곰’으로 읽을 수 없을까? ‘尔’이 ‘금’으로 읽히는 까닭은 미상이나, 혹 ‘승’의 俗書가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보았다.<sup>22)</sup> 이 시어의 해독법은 ‘鳴’를 양주동(지현영, 김준영)처럼 ‘오’로 읽은 계통과 소창진평(이탁, 홍기문, 정렬모, 김선기, 김완진)처럼 ‘우’로 읽은 두 계통이 있다. 전자로 읽으면 ‘올린다(上)’는 뜻의 시어가 되고, 후자로 읽으면 ‘올다(鳴)’는 시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尔’는 ‘爾’의 속자로 보는 견해와(소창진평, 양주동) ‘旃’의 속자로 보는(홍기문, 김준영)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한편, 김준영은 ‘금(尔)’, 김완진도 ‘금(尔=爾)’으로 읽기도 하였다. 이런 해독은 양주동이 이미 상정해 보았던 것인데, 그 중 어느 하나를 택한 해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학자들의 해독 결과는 현대 시어 ‘올려’(양주동, 지현영), ‘올러’(소창진평, 홍기문, 김완진), ‘우러러(仰)’(정렬모)라는 각기 서로 다른 세 가지 결과를 만들어 냈다. 최근 유창균은 이 시어를 ‘우라곰’으로 읽고 ‘소리나게 쳐서’라고 하였으나 결국은 ‘올려’ 계통이므로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 이런 세 가지 해독을 가지고 현대 시어로 제③구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손을 부벼 올리어서
- (나) 손을 비벼 올려서
- (다) 손을 보듯 우러러

이 노래 제①-④구는 모든 부처님께 이 세상에 계속 머무시기를 간청하는 請佛住世의 의미단락이다. 먼저 (나)를 보면 손을 비벼서 소리를 낸다는 것이므로 의미 맥락의 모순을 가져 온다. 부비는 것은 소리가 날 수 없으며 손바닥을 쳐야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유창균은 “절에 기도할 때 손바닥을 비벼어 쳐 소리가 나게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습이다”<sup>23)</sup>고 하였으나 절에 기도할 때 그런 관습을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다)는 ‘손을 보듯이 우러러’가

22) 양주동, 앞 글, 100쪽 참조.

23) 유창균(1994), “향가비해”, (서울, 형설출판사), 1009쪽.

되어 부처가 손처럼 승양의 대상이란 것인데 그런 비유는 이 시의 문맥에서 뿐 아니라 불교 신심의 맥락에서 볼 때도 가정해 보기 어려운 시어다. 부처를 우대한다고 해서 부처가 이 세상에 머문다는 것은 불교적 사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가)처럼 손을 합하여 올린다는 合掌 정도의 의미를 갖는 시어가 놓여야만 이 노래의 시적 문맥 형성에 모순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제⑤구의 '曉留'를 양주동이 '새배루'로 읽은 것은 소창진평의 '새벽으로'를 발전시킨 해독인데, 그뒤 지현영, 김준영 등이 모두 이에 좌단하고 있다. 이 계통과 다른 해독은 이탁의 '불은'과 김완진의 '붉논'이 있다. 이 시어는 다음에 오는 '朝于萬'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시어를 양주동은 '아침'으로 읽었으나, 이탁과 김완진은 '아침 가만'으로 읽고 있다. 이 계통으로는 정렬모가 있는데 그는 '아침 우만'으로 읽었다. 전자는 한 시어로 읽었으나 후자는 두 시어로 읽은 것이다. 일반 문장 논리로 본다면 후자의 해독은 아래와 같이 훨씬 더 명료한 짜임을 보여준다.

(가) 밝은 아침 째깍한 밤에 (김완진)

(나) 밝은 아침 조용한 밤에 (이탁)

(다) 쉼 아침 우만 밤에 (정렬모)

'아침'과 '밤'이 대등하게 놓이고 각기 그 시어 앞에 꾸밈말이 붙어 조화로운 균제미를 창출해 내고 있다. 그러나 김완진이 '留'를 '畚'의 轉訛로 상정하여 '붉논'으로 읽은 것은 '留'를 '루'나 '고'로 읽은 해독법보다 훨씬 위험스런 발상일 것 같다. 현재로는 양주동의 '새배루'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于萬'이 만일 맹아득안가와 칭찬여래가에 쓰인 '于萬'과 같은 용법이며 '가만'이어야만 한다면 이 시에서는 그런 해독을 따른다 해도 시적 문맥에서 볼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양주동의 해독과 그의 해독이 만일 '아침' 대신 '아침 가만'을 수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시적 문맥이 만들어진다.

(가) 새벽으로부터 아침, 밤에 이르기까지

(나) 새벽으로부터 아침, 조용한 밤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가)는 시간적 연속성으로 본다면 '아침' 대신 '정오' 정도의 시어가 오는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른 아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침 앞에 새벽을 놓을 수 있고, 불교의례에서 새벽에서 아침까지를 아침에서 저녁까지와 等長性으로 설정할 가능성은 아주 높아 모순이 되는 곳은 별로 없다. (나)는 ‘새벽으로부터 아침까지’는 시간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조용한 밤’은 어떠한 밤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서 시적 문맥 형성에 모순을 드러내며 정서의 유완가 충돌현상을 보이고 만다. 따라서 이 부분도 양주동의 해독에 문제가 있다면 그와 유사한 시적 문맥을 만들 또 다른 해독이 없을가를 다시 찾아 보아야 할 것 같다.

제⑥구의 ‘朋知良闈尸也’는 양주동이 ‘별 아라세라’로 읽은 뒤에 지현영이 수정없이 이에 좌단하고 이탁, 김준영 등도 해독법에서 큰 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김완진에 와서 ‘별 아라 고침이여’로 읽어 주목을 받은 시어다. 여러 해독자들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朋 知 良 闈 尸 也

(가) 양주동, 이탁, 지현영, 김준영, 유창균: ① ②③④⑤⑥

(나) 소창진평, 홍기문, 김완진: ① ②③ ④⑤⑥

(다) 정렬모: ①②③ ④⑤⑥

이 세 가지 유형의 해독법으로 읽어낸 결과는 현대 시어로 ‘벗을 알았구나!’(양주동, 지현영 등), ‘벗을 알자꾸나’(이탁), ‘벗 알아 고침이여’(김완진), ‘벗 알 것이로다’(유창균)와 같은 서로 다른 네 가지 결과를 만들어 냈다. 결국 ‘벗을 알다’는 계통의 해독이 주류를 이루나 김완진만은 ‘고침이여’란 특이한 해독을 하고 있다. 그의 이런 해독은 ‘闈’자를 ‘醫’자의 轉訛로 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전와설은 그 동안 여러 해독자들의 해독에서 보인 지엽적인 불완전성보다 훨씬 더 큰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앞서 다른 글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sup>24)</sup> 이런 해독 결과를 가지고 제⑥구를 현대어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향하실 벗을 ①알았구나 (②알자꾸나, ③알 것이로다)

24) 임기중, 앞 책, 137-211쪽 참조.

## (나) 향하실 벗 ①알아 고침이여

이 구절은 전후 문맥으로 살펴볼 때 '敎化의 인연을 마친 부처님들께 간청하실 벗들을 이제 알았구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가)-②, ③과 같은 청유나 서술의 어미가 오기는 어려운 곳이다. 그런 어미가 올 경우 이 문맥뿐 아니라 이 시의 주제에도 전혀 걸맞지 않아 문맥 파괴와 아울러 주제 파괴 현상까지를 초래한다. (나)-①처럼 '고침이여'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김완진의 설명에 따르면 '菩提를 향하는 뜻을 일으킨 중생들을 부처들이 식별하여 그 마음을 고쳐 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에서 마음을 고치는 것은 부처가 식별해서 고쳐 주는 것이 아니고 중생 스스로가 깨달아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적 사유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 버리고 만다. 결국 '향하실 벗을 알았구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른 해독일 것이다.

제⑦구의 '伊尸迷反'에서 '伊'에 관한 거론은 앞에서 이미 한 바 있고 나머지 '알과'와 '알기'는 단순한 모음조화 문제일 뿐이다. '爲米'의 'ㄷ외매'와 'ㄷ뫼매'도 음운변화에 따른 표기법의 문제여서 현대 시어로는 문제가 되는 곳이 아니다. 두 어휘 모두 후자의 표기가 바른 표기라고 하는 데 별다른 異論이 없다.

제⑧구 '道尸迷反'의 '이본'과 '이반'의 문제는 표기법상의 문제지만 현대 시어로 '잃은'과 '몰라'로 바꾸고 있는 곳이어서 같은 시어라고 속단할 수만은 없는 곳이다. 잃는다는 것은 가지고 있다가 잃었다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佛道의 깨달음이 그렇다는 것이며 모른다는 것은 알지도, 이해하지도,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群良'을 '물'이나 '몰아'로 읽는 것은 현대 시어로는 큰 변화가 없는 곳이다. 어떻게 읽어도 문맥 소통에 장애가 없다. '길 잃은 무리들이 슬프구나'나 '길 잃은 무리들이여, 슬프구나'나 같은 의미의 순조로운 소통 맥락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같은 佛性を 지닌 평등한 중생들이므로 '무리들이'가 더 불교적이라 할 수 있다. '哀呂舌'을 양주동이 '슬홀씨'라고 읽은 뒤 지현영과 홍기문이 전적으로 그에 좌단하고 이탁, 정렬모, 김준영 등도 이 계통의 해독법을 내놓았다. 그러다가 김완진에 와서 '설보리여'로 읽고 '서러우리'라는 현대 시어로 바꾸었다. 김완진의 이런 해독은 표기체계의 측면에서 보면 다소 발전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적 문맥에서 본다면 양주동의 '슬프구나'처럼 원만하지 못하다. 김완진은 이 부분을 '길 잃은 무리여 서러우리'라는 현대 시어로 바꾸고 있다. 이것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주종적 관계상황의 문맥이다. 그러나 양주동의 '길 잃은 무리들이 슬프구나'는 길 잃은 중생편에 서서 슬퍼하는 것이 되

어 불교의 悉有佛性에 맞는 순조로운 불교적 의미 맥락을 만들어 낸다.

#### 4. 맺음말

이제 앞에서 거론한 내용에 따라서 혜성가, 원왕생가, 광수공양가, 청불주세가 네 작품을 현대 시어로 바꾸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가 된다. 아래 시에서 고딕체로 쓴 시어가 양주동의 해독과 현대어 역에다 그 이후의 해독 결과를 가지고 필자의 견해를 다소 더하여 보완해 본 것이다.

혜성가

- ①옛날 동해 물가 / ②건달바가 놀던 성을 바라보고 //
- ③“왜군도 왔다”고 / ④봉화를 든 변방이 있구나! //
- ⑤세 화랑의 산 구경 오심을 들고 / ⑥달도 부지런히 등불을 켜는데 //
- ⑦길 쓸 별 바라보고 / ⑧“혜성이여!” 사된 사람이 있구나! //
- ⑨아! 달은 저 아래로 떠나가 버렸더라. / ⑩이바 무슨 혜성이 있을꼬. //

원왕생가

- ①달님이시여, 이제 / ②서방까지 가서서 //
- ③무량수불전에 / ④알아들도록 사죄소서. //
- ⑤“다짐 깊으신 부처님을 우리러 / ⑥두 손을 곧추모아 //
- ⑦‘원왕생 원왕생’ / ⑧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사죄소서. //
- ⑨아! 이 몸을 남겨두고 / ⑩사십팔대원을 이루실까. //

광수공양가

- ①부젓가락 잡으며 / ②불전의 등불을 돋우려니 //
- ③등불의 심지는 수미산이요 / ④등불의 기름은 큰 바다를 이루었네. //
- ⑤손은 법계가 다하도록 하며 / ⑥손마다 법공양으로 //
- ⑦법계에 가득 차신 부처님 / ⑧부처님마다 두루 공양하옵고자 하네. //
- ⑨아! 법공양이야 많으나 / ⑩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양이로다. //

청불주세가

- ①모든 부처님들께서 / ②비록 교화의 인연을 마치셨으나 //

- ③손을 부벼 올리어서 / ④이 세상에 계속 머무시게 하고 싶구나! //
- ⑤새벽으로부터 아침, 밤에 이르기까지 / ⑥향하실 벼를 알았구나! //
- ⑦이것을 알게 되니 / ⑧길 잃은 무리들이 슬프구나! //
- ⑨아! 우리 마음 맑으면 / ⑩부처님의 모습 아니 감응하시오리. //

이 네 작품의 시적 의미 소통 맥락을 간단하게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혜성가의 제①-④구는 假有의 존재(건달바가 놀던 성)와 實有의 존재(왜군)를 대응시키고 있다. 가유와 실유는 有라는 공통성과 實이란 이질성을 갖는다. 이것은 있었던 것이 없어질 수 있으며, 없었던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 구조다. '건달바성'이란 불교에서 作化된 假有(환상같은 거짓 존재)의 세계를 비유하는 말이다. 제⑤-⑧구는 혜성 출현이라는 實有의 세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⑨-⑩구는 위 제⑤-⑧구의 실유의 세계를 다시 假有의 세계로 환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문법은 한국 전통시 왕벌석주사나 미나리주사 등에서처럼 자주 쓰여 왔으며, 향가 서동요와 처용가 등의 작품에도 쓰이고 있다(필자의 앞 논문, '향가의 주사적 시문법', 16쪽 참조).

원왕생가의 제①-④구는 願主가 願을 세운 發願場이다. 제⑤-⑧구는 구체적인 發願의 내용(願往生)이 되는 行願場이다. 그리고 제⑨-⑩구는 발원의 成就願을 다진 誓願 곧 志願場이다. 이런 세 단계의 場을 연결해 놓은 것이 원왕생가다.

광수공양가의 제①-④구는 燈明供養의 行願을 제시하고, 제⑤-⑧구는 제①-④구의 등명공양을 단순한 財供養이 아닌 보리심을 일으키는 法供養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리고 제⑨-⑩구는 제⑤-⑧구의 법공양을 다시 燈明供養으로 연결하여 불교적 法輪構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 무한한 광수공양을 노래한 것이다.

청불주세가의 제①-④구는 願主가 청불주세의 願을 세운 것이다. 제⑤-⑧구는 그 願이 이루어져서 중생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慈心和 중생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悲心이 생긴 것이다. 제⑤-⑥구에는 중생에 즐거움을 주는 慈心을, 제⑦-⑧구에는 衆生苦를 없애 주는 悲心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⑨-⑩구는 慈悲落草의 衆生濟度を 노래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 소창진평(1929), 향가급이두의 연구, 경성대학문학부기요.  
양주동(1942), 조선고가연구, 박문서관.  
\_\_\_\_\_ (1965), 중정고가연구, 일조각.  
지현영(1948), 향가여요신석, 정음사.  
홍기문(1956), 향가해석, 과학원.  
이 탁(1958), 국어학논고, 정음사.  
김준영(1964), 향가상해, 교학사.  
\_\_\_\_\_ (1991), 향가문학, 형설출판사.  
정렬모(1965), 향가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김선기(1967-1975), “향가의 새로운 풀이”, 현대문학, 145호-250호.  
\_\_\_\_\_ (1993), 옛적 노래의 새 풀이, 보성문화사.  
서재극(1975), 신라향가의 어휘연구, 계명대출판부.  
김완진(1981),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임기중(1981),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유창균(1994), 향가비해, 형설출판사.